



잡지에서 명화가 실린 페이지를 오려내던 소년 김달진의 머릿속에 지금과 같은 미래는 없었다. 그저 그림이 좋아서 잡지의 화보를 하나 둘 모으다 수집의 재미를 알게 됐고, 어느새 청계천을 뒤지며 그림 자료를 모으게 되었다. 취미는 점점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게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근대미술 60년전>을 본 이후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 자료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미술관과 박물관, 청계천 등을 돌아다니며 전시회 티켓, 포스터, 팸플릿부터 정기간행물, 화집 등을 모았다.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단계에 이르러 취미를 넘어 작업이 되었고, 또 그것이 더 쌓여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연구소와 박물관이 된 거죠.”

미술 잡지, 국립현대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등에서 근무할 때도 미술 자료 수집은 여전히 취미의 영역에 있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걱정을 들었고, 큰 가방을 둘러메고 온갖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팸플릿을 모으던 초창기에는 화랑가의 의아한 시선을 받기도 했으며, 쌓여가는 자료 때문에 이층집의 마루가 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자기만족이었죠. 그냥 그렇게 모으는 게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모으다 보니 점차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있을 때는 큰 의미 없는 자료지만, 모아서 분류하고 분석하다 보니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이었던 거죠.” 취미는 결국 작업이 되었다. 2001년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고, 이듬해에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했으며, 2007년에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화집, 학회지, 논문 등을 갖춘 미술 자료실을, 2008년에는 그가 40여 년간 수집해온 근현대 미술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미술계에서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아키비스트’라는 새로운 직종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는데, 근현대 미술인들의 정보를 담은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출간이 그것이다.

개인의 힘으로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커다란 일을 해낸 그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된다. 매일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을 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경매 사이트에 보존 가치가 있는 물건이 올라오는지 틈틈이 체크하며, 시간이 나면 인사동과 사간동을 직접 찾아 전시를 둘러본다. “이 일에 끝은 없습니다. 역사는 오늘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꿈이 만들어낸 큰 역사

40여 년에 걸쳐 개인이 수집한 미술 자료들이 모여 하나의 박물관이 만들어졌다. 홍대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에는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가 담긴 자료가 가득하다.

에디터 황정민(프리랜서) 포토그래퍼 김춘호

